

NGO 프로그램 참관기

신남현 / 본회 사무국 주임

The Facilitated Work Placement Programme(FW-PP, NGO 인턴쉽 교환 프로그램)은 동북아시아 발전의 최대 장애물로 등장한 AIDS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UNDP 정책의 일환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HIV/AIDS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NGO를 돕고 참가국간의 축적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필리핀에서 개최되었다. 참가자들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상당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동북아 3개국(몽골·중국·한국)에서 각각 3명, 2명, 2명이

참석하였다. 협회에서 업무를 시작하지 얼마 안 되고, 학창 시절에 외국에 나가 본 적이 없는 나로서 타국에서 온 문화·언어가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3주간을 보내며 HIV/AIDS관련 교육을 받는 것에 설렘보다는 걱정이 앞섰다. 필리핀을 향하여 가는 약 4시간 동안 이런 생각에 사로 잡혀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마닐라 공항에 도착하여(5월 15일 토요일) 우리를 마중 나온 John(나중에 안 것이지만 동성애자였다!)의 독특한 영어발음

과 환한 웃음은 이러한 긴장을 누그러뜨리기에 충분했다. 교육을 시작하기 전날밤(5월 16일 일요일), 모든 참가자들은 AIDS로 사망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한 촛불행사에 참여하였다. 촛불을 밝혀 HOPE·CARE·SUPPORT라는 세 글자를 만든 후, 에이즈로 사망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들의 이름이 적힌 Ash Box를 파도치는 바다를 향하여 던졌다. 그들을 기억하고 AIDS의 심각성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행사의 마지막에는 희생자의 이름을 묶은 풍선을 하늘 높이 날리며 그들을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함께 실어 보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각국 참가자들과의 공식적인 만남을 가진 후 각국의 HIV/AIDS현황과 대처 방안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이렇게 3주간의 필리핀에서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FWPP 교육은 두 가지 형태로 실시되었다. 먼저 강의실 내의 교육으로 AIDS에 관한 기초, 인권, IEC(정보·교육·커뮤니케이션) 자료 개발, 행동변화 이론과 실제, 동료교육, 고위험



집단 접근 등에 관한 내용들이었다.

다음으로 HIV/AIDS에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는 NGO를 방문하여 실제로 우리가 강의실에서 배운 것을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관계자들로부터 듣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강의실에서 얻을 수 없는 그들의 축적된 노하우를 얻을 수가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은 NGO는 여장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Iwag Davaw」였다. 이 단체는 동성애자들의 인권보호 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 설치된 동성애모임과 경찰을 대상으로 HIV/AIDS 예방을 위한 콘돔 사용 등 안전한 성관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이 단체에서 만난 동성애자를 통해 그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본회에서 「쉘터」와 「에이즈정보센터」를 신설하였기 때문에 필리핀 NGO들이 이 두 시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가졌다. 「Pinoy Plus」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감염자를 위한 쉘터로서 넓은 정원과 안락한 실내공간을 가지고 있었다. 이 시설은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되어있으며 감염인 치료를 위한 의료인들이 있어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할 수가 있었다. 또한 수익사업으로 감염자들이 직접 인형·티셔츠 등을 만들어 판매하

였다. 치료와 재활을 함께 모색하고 있는 듯 했다.

「ISSA」는 대표적인 정보센터로 에이즈·성·아동 등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구비하여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인터넷이나 우편, 전화로 신속하게 응하여 줄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기관들과 연계를 맺어 정보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항상 새로운 자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두 단체의 활동을 그대로 본회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들과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우리의 문제를 그들과 협의하고 합리적인 제언을 받음으로써 본회의 쉘터와 에이즈정보센터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중간에 몽골 참가자의 제안으로 친목회를 갖게 되었다. 참가자들은 각 나라의 음식을 직접 만들어 나누고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간의 우정을 쌓았다. 국가대표 요리사로서 나는 김치전을 선보여 한국의 매운맛을 보여 주었고, 「아침 이슬」을 목청 높여 불러 한국의 힘을 들려주었다. 언어의 장벽은 있었지만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개인의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어느덧 절친한 친구들이 되었다. 앞으로도 이들은 HIV/AIDS 예방을 위

한 좋은 동역자로서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얻은 HIV/AIDS에 관한 새로운 지식 그리고 각국 참가자들과의 계속되는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에이즈 예방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힘들 때마다 나에게 도움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Remedios Foundation의 많은 스태프들, 우리의 언어 문제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가지고 강의한 많은 강사들, 그리고 Davao City에서 환대해주었던 「Iwag Davaw」의 동성애자들, 무엇보다도 서로를 깊이 이해해주고 감싸주었던 각국의 참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